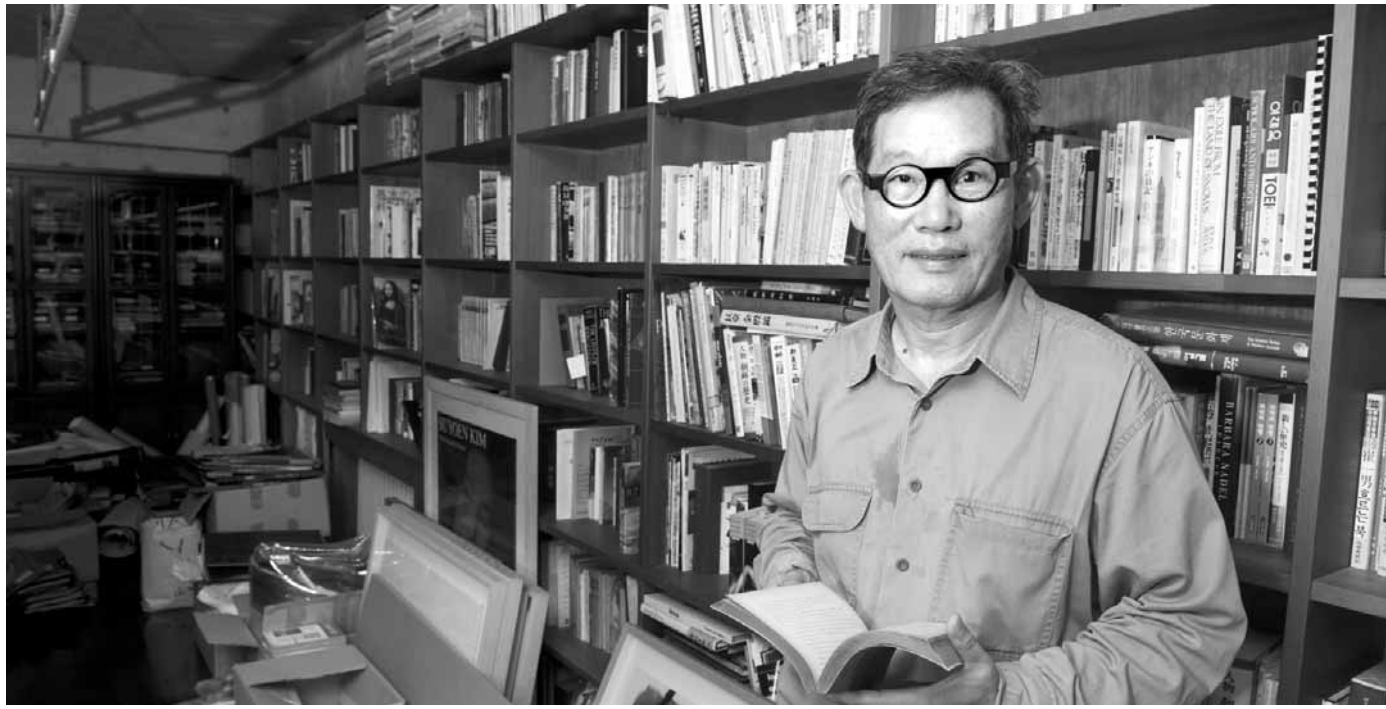


“책은 내 운명. 삶의 자양분이자 스승이었다”

컬처 & 피플

한길사 대표 김언호



“책은 운명이었다. 내 삶의 자양분이자 멘토이며 스승이었다.”

한길사 김언호(출판도시문화재단 이사장) 대표는 ‘책’을 그렇게 말했다. 과연 40여년 출판한길을 달려온 출판인다운 견해다.

김 대표가 한길사를 설립한 것은 1976년이었다. 그 한길만을 고집했던 시간, 필설로 다 할 수 없는 부침이 있었다. 광야에 홀로 선 것처럼 아득한 시대도 있었고, 한 줄기 빛도 보이지 않는 어둠의 시대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우직하게 운명의 한길을 걸어왔다. 역설적으로 통제와 검열로 점철되었던 억압한 시대가 있었기에, 빛나는 책들을 만들 수 있었는지 모른다.

그동안 김 대표는 한국 지성사에 빛나는 주옥같은 명작들을 발간해왔다. 38년 간 펴낸 책의 종류가 줄잡아 3000여 권에 이른다. 1970~80년대 한국의 지성사, 사회사, 사상사를 다채롭게 보여주는 사상신서를 비롯 동양과 서양의 고전을 총망라한 ‘한길 그레이트북스’는 “역사 한길사”라는 상찬을 받을 만큼 독보적인 결실이었다.

그뿐 아니라 한길사의 출판정신이 오롯이 담긴 ‘한길역사강의’시리즈와 ‘로마인이야기’ ‘이화여의 한국사 이야기’와 같은 베스트셀러는 독자에게 적잖은 반향을 일으켰다.

김 대표는 다수의 책을 발간한 작가이기도 하다. 지금껏 ‘출판운동의 상황과 논리’, ‘책의 탄생 I·II’, ‘책의 공화국에서’, ‘한권의 책을 위하여’와 같은 밀도 있는 책을 펴냈다.

그에게서 책 냄새가 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외양적 책의 향기뿐 아니라 책이 내재하고 있는 특유의 서지향도 배어나온다. 고서의 지고한 분위기와 인문의 향기, 사회과학의 정밀한 이미지가 한데 어울린 아우라 말이다.

최근에 그 ‘한권의 책 같은 사람’ 김언호 대

40년 출판 오직 한 길 일생을 책의 바다에 던진 한 권의 책 같은 사람

표를 만났다. 한길을 달려온 이답게 그에게서는 우직한 선비의 이미지가 배어 나왔다.

“세상에 아름다운 소리가 많지만 책 읽는 소리만큼 아름다운 소리는 없다. 학생들과 젊은이들의 책 읽는 소리가 골목 구석구석에 차고 넘칠 때 우리의 미래는 밝아질 것이다.”

김 대표가 책 읽기를 강조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아무리 정부에서 문화융성을 강조해도 책을 읽지 않는 상황에서는 백악이 무효란다. 지적 토대가 허약한 상황에서 창조적 상상력을 기대하는 건 우물거에서 송눈을 찾는 것과 진배없을 터.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반해 지적 수준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지적 저하로 제대로 강의를 따라가지 못하는 대학생들도 부지기수다. 창조성은 저절로 획득되는 게 아니지 않나. 끊임없이 읽고, 사고하고, 토론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가운데서 발현된다.”

그에게 책은 운명이라기보다 필연에 가까웠다. 그렇다고 김 대표가 처음부터 출판인의 길을 걸은 것은 아니다. 누구나 필연이라는 결론에 이르기 위해서 몇 번의 곡절을 겪기 마련이듯, 그에게도 변곡점이 있었다.

원래 그는 기자로 사회에 첫발을 내디뎠다. 중앙대 신문학과를 졸업하고 동아일보 기자(1968년~1975년)로 활동했다. 그러나 1975년 자유언론실천운동에 참여했다가 해직된다. 이후 그의 동료들은 종종 업계로 진출하거나 바른 언론을 세우기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 그러나 그는 언론인의 길을 접고

다른 길을 모색한다.(물론 참 언론에 대한 가치를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어찌할 수 없는’ 삶의 파고로 아픔을 겪고 나자 ‘필연’을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어린 시절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 경남 밀양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기에 중학교 때까지도 책을 많이 읽지 못했다. 정확히 말하면 책 구경을 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편이 맞을 거다. 책의 존엄함, 아름다움, 유용성에 대해 지각을 했던 게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부터였다. 헌책방골목을 드나들면서 봤던 그때의 풍경은 지금도 빛나는 한때로 기억되고 있다.”

그때의 기억이 오늘의 그를 만들었다. 그는 일생을 책의 바다에 던지리라고 결심한다. 이후 적지않은 곡절을 겪었지만 “책은 정지하다”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시련을 견뎠다. 작금에 불고 있는 인문학 바람에 대해 물었더니 돌아온 대답 역시 책 읽기로 귀결된다.

“인문학이 무엇인가?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한 사회와 개인이 올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안내하는 나침반과도 같다. 공간적 관점으로 보자면 열려 있는 대학 캠퍼스다. 책방거리, 책의 전당, 책의 캠퍼스가 융합돼 있는 실제 그것이 바로 인문학이다. 그러나 작금의 인문학 열풍은 너무 가볍고 포퓰리즘적인 면이 없지 않다. 긴 안목을 갖고 탄탄한 지적 토대를 만들 수 있는 책 읽기 문화와 아울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게 우선 순위가 아닐까?”

출판도시 문화재단 이사장직을 맡고 있는 김 대표는 출판인의 본분뿐 아니라 ‘책의 도시’를 이끌어야 하는 선장의 책무도 짊어지고 있다. 그는 “파주에서 시작된 ‘책의 도시’가 전국 곳곳을 책의 도시로 변화시키는 마중물이 되었으면 한다”는 소망을 피력한다.

/파주=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박진희의 문화카데

평일 한낮인데도 소극장에서 서너 명의 주부들이 연극 연습에 한창이었다. 일본어로 대사를 주고받아 내용은 이해하기 힘들었지만 표정에선 전문 배우 못지 않는 진지함과 열정이 묻어났다. 바로 옆방에 자리한 스튜디오에 들어서자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청년들이 밴드연습에 열중하고 있었다. 악기를 연주하는 이들의 손놀림에 선 록커의 에너지가 넘쳐 흘렀다.

2년 전 취재차 방문한 일본 가나자와 시민예술촌(예술촌)의 풍경이다. 가나자와는 인구 47만 명의 중소도시이지만 시민 세 명 중 한 명이 아마추어 예술가라고 할 만큼 문

화로 활용돼왔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내려주는’ 공모사업들로 채워져 시민들의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그리 많지 않다. 또한 한 해 예산 3억 원으로 예술교육센터를 꾸려 가다 보니 냉난방은커녕 건물의 하자 보수도 하기 힘들다. 그래서인지 건물에 들어서면 여기저기 페인트칠이 벗겨지고 시공이 노후화돼 을씨년스럽다. 관리를 떠맡긴 광주시가 지난 6년 동안 단 한푼도 시설 보수 예산을 지원하지 않은 탓이다.

게다가 한 술 더 떠 광주시는 최근 광주문화재단 측에 연말 안으로

거꾸로 가는 광주시 예술교육

화가 생활 곳곳에 흐르고 있었다.

그 중에서 가나자와 시민들의 문화향유를 느낄 수 있는 곳은 예술촌이었다. 1993년 다이와 방직공장이 이전하면서 철거위기에 처했던 공장 부지(9.7ha)를 가나자와시가 매입해 시민들의 예술공간으로 리모델링한 곳이다. 말하자면 시민들의 평생 예술교육의 장인 셈이다. 전문 예술가들의 발표무대는 많은데 비해 정작 시민들의 예술활동과 교육을 위한 전용공간이 없는 데 착안했다. 한 해 120억 원의 운영경비 가운데 90%를 가나자와시에서 부담한다.

광주전변에서 사직공원으로 올라가는 구 KBS 광주방송 사옥 부근에는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옛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 건물)가 있다. 명칭만 ‘센터’이지 광주문화재단의 예술교육지원팀에 불과한 이곳은 지난 2008년 광주시로부터 관리를 맡는 조건으로 6년 동안 지역사회의 문화예술교육 공

예술교육센터를 빼달라고 통보했다. 지원은 하지 않으면서 공간 활용도가 미비하다는 게 이유다. 전용공간을 확보할 길이 없는 예술교육센터로서는 내년부터 비좁은 광주문화재단(빛고을문화관)에서 더 부실할 게 해할 처지다.

사실 한 건물을 여러 부서가 공유하다 보면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여러 제약이 받게 마련이다. 서울이나 인천 등 다른 지자체들이 예술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해 전용건물은 물론 개별적인 기관으로 위상을 격상시키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문화의 시대, 예술교육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정부의 문화융성 정책도 예술교육이 동반되지 않으면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예술교육센터를 ‘홀대’하는 광주시의 행태는 이런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다. 문화광주의 미래는 예술교육에 있다.

(편집부국장·문화선임기자)

펠릭스 스튜디오 ‘카툰커넥션 어워드’ 수상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김용관)은 광주 지역 기업인 펠릭스 스튜디오(대표 김태훈)가 최근 제주도에서 열린 ‘아시아-EU 카툰커넥션 2014’에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와 EU 집행위 산하기구인 ‘CAR-TOON’에서 공동주최한 행사다.

심신하고 독특한 콘텐츠를 선발해 시상하는 카툰커넥션 어워드 수상자인 펠릭스 스튜디오의 ‘도깨비술사’는 도깨비들을 통해 동심을 바라보는 내용의 애니메이션이다. 이번 수상으로 펠

릭스 스튜디오는 내년 유럽에서 열리는 카툰포럼에 초청돼 피칭할 수 있는 특전을 부여받았다. ‘아시아-EU 카툰커넥션 2014’에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와 EU 집행위 산하기구인 ‘CAR-TOON’에서 공동주최한 행사다.

한편 펠릭스 스튜디오는 ‘2013년도 문화콘텐츠 기획창작스튜디오 운영 지원사업’에 선정돼 광주콘텐츠창업보육센터에 입주했다.

/김정민기자kiki@kwangju.co.kr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 山 프리모 남기발

국무총리상 표창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장 표창 · 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기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1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백명숙 이사, 유경선 원장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까지...
중매 잘한다~ 성사 잘한다~ 소문!

회장: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광주 서석초등학교 졸업,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고, 한국도로공사 다년재직)

초혼	추천회원	재혼
남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7-45세 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28-47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상성, 현대, LG 직원 28-47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대(중, 소)기업 직원 27-48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교사, 교수 28-49세	여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변호사, 회계사, 변호사 26-3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42세 스타일디자이너, 영양사 26-42세 미스터리아, 미스전복 27-36세	남 의사, 변호사 32-65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 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 대기업 간부 36-59세 회사원, 자영업 33-67세 '무술산 여성' 희망 31-58세
		여 VIP 희망 여성 29-53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63세 공무원, 교사 32-58세 간호사, 회사원 29-48세 자영업, 가사 35-64세 '무지녀 남성' 희망 28-48세

강남역 7번출구 70m 44년째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